

Exner 종합체계에 따른 한국정상성인의 Rorschach 반응특성 I

신 경 진 · 원 호 택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본 연구의 목적은 Exner종합체계에 따라 한국정상성인의 잠정적인 Rorschach 반응특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18세 이상 정상 성인의 Rorschach 278사례를 Exner종합체계에 따라 실시하고 채점하였다. 이를 Exner가 제시한 70개의 변인별로 평균을 내고 17개의 구조적 변인의 방향성을 조사하여 미국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Exner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미국성인에 비해 한국성인은, 첫째, 총반응수, 평범반응, 내용범주, 순수인간반응, 총인간반응, 조직의 빈도, 특별점수는 적었으며 동물반응은 많았다. 둘째, W 반응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W:D=1:1$ 이었다. 셋째, Exner의 형태질표에 따라 채점을 한 결과, 좋은 형태질의 비율이 낮았고 나쁜 형태질의 비율은 높았다. 넷째, 인간운동반응이 적었고 동물운동반응은 많았으며, 그 방향은 $M<FM$ 이었다. 다섯째, 색채반응이 적었고, Af 가 낮았으며, FC 와 $CF+C$ 의 방향은 $FC<CF+C$ 였다. 또한 음영반응 중 $FC'+C'F+C'$ 와 $FT+TF+T$ 는 적었고, $FV+VF+V$ 와 $FY+YF+Y$ 는 많았다. 여섯째, $Zd<-3.0$ 인 사람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일곱째, 자기중심성 지표($3r+(2)/R$)가 낮아 .30이하인 사람의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끝으로 한국인과 미국인의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 논의되었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형태질 수준표와 평범반응 및 영역구분이 객관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이 논의되었다.

Hermann Rorschach가 1921년 Rorschach검사를 처음으로 만들어 낸 이래, Rorschach검사에 대해 많은 연구가 거듭되면서 여러 Rorschach체계가 만들어졌다. Exner는 Beck, Hertz, Klopfer, Rapaport & Schafer 및 Piotrowski 등 기존의 5가지 대표적인 Rorschach체계를 종합하여 1974년 Rorschach종합체계를 출판하였다(Exner, 1974). Exner는 그후 초판에서 모호한 채점 근거들을 보다 분명히 하고, 체계적인 기준 연구를 하여 1986년 개정판을 내었다(Exner,

1986). 이로써 Exner는 Rorschach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 연구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Exner종합체계에 따른 여러 변인과 지표 및 미국의 기준을 우리나라의 임상장면 즉, 심리적인 장애를 진단하고 내담자의 성격이나 생활방식 혹은 지각 양식등을 평가하는 영역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한국사람의 형태질이 대체로 나쁘고 자기중심성 지표($3r+(2)/R$)가 낮으며, 자살지표($S-Constell$)와 정신분열증 지표($SCZI$) 및 우울증

지표(DEPI) 등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국성인을 대상으로 한 규준 연구가 마련되어야 한국성인의 Rorschach검사 자료에 대해 보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이루어진 규준 연구는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체계를 혼용하여 사용하여 왔다. 이전에 이루어진 규준연구 결과도 상호 일치되는 부분도 있으나 불일치되는 부분도 있다. 한국인에 있어서 $W\%$ 가 높은 것은 기존의 규준연구(김중술, 1967; 박조열, 1961)에서 일치되게 나타났다. 반면, 색채반응의 경우, 박조열(1961)은 $FC=1.92$, 김중술(1967)은 $FC=0.22$ 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FC:CF+C$ 의 비율도 박조열(1961)은 4:1로 FC 가 $CF+C$ 보다 많았다. 그러나 김중술(1967)의 연구에서는 FC 보다 $CF+C$ 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실시방법이나 채점체계의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김중술(1967)은 Klopfer방식을 사용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나 박조열(1961)은 사용한 채점체계를 밝히지 않았다. 적어도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가 실시되어야 비교가 가능한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ner종합체계에 따라 규준 연구를 할 때 가능한 또 하나의 이점이 있다. Rorschach검사를 통해 한국의 문화권과 타문화권간의 차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 정상인의 규준을 마련함으로써 외국의 규준을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하여 검사결과가 잘못 해석되는 가능성을 줄이고, 둘째, Exner종합체계에 따라 Rorschach 규준 연구를 함으로써 Rorschach의 표준화 작업에 기여하며, 셋째, 타 문화권과의 비교문화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다.

방 법

1. 실시 및 채점

본 연구는 Exner 종합체계(1986)에 따라 실시하고 채점하였다. 형태질의 채점도 Exner가 조사한 형태질표를 따랐다. 채점자간 신뢰도는 전체 표집(N=278)에서 50사례를 무선으로 뽑아서 Exner 종합체계(1986)로 훈련된 자 1명과 본 연구자 1명이 독립적으로 채점을 하여 일치도를 내었다. 그 결과, 영역 98.4%, 조직 97.1%, 결정인 92.8%, 운동 98.5%, 내용 97.3%, 형태질 94.2%, 특별점수 97.0%로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 불일치된 채점은 Exner 종합체계의 기준에 근거하여 일치시켰고 Exner 종합체계에서도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은 내용은 본 연구자 2인과 그 외의 채점자 1인이 토론을 하여 일치시켰다(예컨대, '정자'와 '난자'는 A나 An 혹은 Sx로 채점될

표 1. 피검자의 연령별 학력 및 연령별 성별 분포

연령	학 력						성 별		
	국졸	중졸	고졸	대재	대졸이상	계	남자	여자	계
18-25		1	19	93	22	135	69	67	136
26-33	6	2	15	4	58	85	44	41	85
34-40	4	1	4	.	12	21	16	6	22
41이상	8	11	7	.	9	35	17	18	35
계	18	15	45	97	101	276*	146	132	278
%	6.5	5.4	16.3	35.1	36.6	100.0	52.5	47.5	100.0

* 총278 사례중 2사례는 학력미상임.

수 있으나 미생물체로 간주하여 A로 채점함. '고목이 괴물로 변하고 있다'는 $M^P(H) \cdot Bt Inc$ 로 채점함).

2. 피검자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은 18세 이상의 비환자를 대상으로 7년간 수집한 290개의 Rorschach 사례중 신뢰할 수 없게 실시되었거나 (질문을 하지 않아 all F로 채점된 사례) 극단적인 (대부분이 W, C, Ab 로 채점된 사례) 12사례를 제외한 278사례를 본 연구에 포함시켰다.

대상으로 선정된 피검자의 연령별 학력 및 연령별 성별 분포는 표1과 같다.

결 과

Exner 종합체계에 나타난 70개의 Rorschach변인에 대해, 한국성인의 평균과 Exner가 조사한 미국성인의 평균(1986, pp 257-258) 및 이 두 집단을 t 검정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따르면 DQ_0 와 $CONTAM$ 을 제외한 68개의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총반응수(R)와 평범반응(P)은 한국성인이 미국성인에 비해 적었다.

영역면에서는 한국성인이 미국성인에 비해 W와 D가 모두 적었으나 이중 D가 현저히 적음으로 인해, W:D의 비율이 미국성인의 경우 1:1.5인데 반해 한국성인은 1:1로 W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간반응(S)은 한국성인이 미국성인보다 더 많았다.

발달질(DQ)을 보면, DQ^+ 와 DQv 는 미국성인이 더 많았으나 DQv/p 는 한국성인이 더 많았다. DQ_0 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형태질을 보면, FQ^+ 와 FQ_0 는 미국성인에 비해 한국성인이 현저히 적은 반면, FQ_u 와 FQ_- 는 한국성인에서 현저히 많았다. $X+\%$, $F+\%$, $X-\%$ 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커서 미국성인에 비

해 한국성인에서 좋은 형태질의 비율은 매우 낮고 나쁜 형태질의 비율은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운동 반응의 형태질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성인에서 M-반응이 많았다.

운동반응을 보면, 한국성인이 미국성인에 비해 인간운동반응(M)이 적었고, 동물운동반응(FM)과 무생물운동반응(m)은 많았다. 또한 미국성인은 인간운동반응을 동물운동반응보다 많이하고 있는데 ($M > FM$) 반해, 한국성인은 인간운동반응보다 동물운동반응을 더 많이 하였다 ($M < FM$). 능동-수동운동 면에서는 한국성인이 수동운동반응을 더 많이 하였고 능동운동은 더 적게 반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능동인간운동(M^a)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색채반응을 살펴보면, 한국성인이 미국성인에 비해 FC , CF , $C+Cn$ 그리고 $Wgt Sum C$ 가 모두 적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성인은 $FC > CF + C$ 인 반면 한국성인은 그 반대 방향인 $FC < CF + C$ 였다. 색채카드의 반응비율인 $Afr[R(VIII+IX+X)/R(I \sim VII)]$ 도 한국인에서 더 낮았다.

음영반응은 전체적으로는(Sum Shad'g) 한국성인이 적게 반응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FC' + C'F + C'$ 와 $FT + TF + T$ 는 미국성인에 비해 한국성인이 적었고, $FV + VF + V$ 와 $FY + YF + Y$ 는 한국성인이 더 많았다. FD 반응은 한국성인이 미국성인에 비해 더 적게 하였다.

쌍반응(2)은 한국성인에서 현저히 적었고 $Fr + rF$ 는 한국성인이 더 많았다. 쌍반응과 $Fr + rF$ 반응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자기중심성 지표($3r + (2)/R$)는 한국성인이 미국성인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형태반응(F)을 보면, 갯수의 평균은 한국성인이 더 적었으나 F와 총반응과의 비율을 낸 $Lambda[(F/(R-F))]$ 는 한국성인이 더 높았다. 즉, 총반응에 대한 F의 상대적인 반응빈도는 미국성인에 비해 한국성인에서 더 많았다.

조직반응의 빈도(Zf)는 한국인에서 더 적었다

표 2. 70개 로사변인에 대한 비환자 한국성인
(N=278)과 비환자 미국성인(N=600)의
평균과 t 검증결과

	한국성인(SD)	미국성인(SD)	t값
<i>R</i>	19.44(8.63)	22.57(5.54)	13.35***
<i>P</i>	4.93(1.79)	6.66(1.66)	113.43***
<i>W</i>	8.38(4.17)	8.58(2.66)	3.68***
<i>D</i>	8.89(6.12)	12.59(4.74)	25.84***
<i>Dd</i>	2.10(2.92)	1.73(2.74)	8.98***
<i>S</i>	2.26(2.10)	1.84(1.66)	24.34***
<i>DQ+</i>	4.44(3.02)	6.90(2.25)	73.65***
<i>DQv/+</i>	1.38(1.64)	.33(.62)	179.17***
<i>DQo</i>	13.35(7.69)	13.66(4.89)	1.68
<i>DQv</i>	.27(.63)	1.66(1.49)	160.67***
<i>FQ+</i>	.53(.99)	.87(.85)	80.34***
<i>FQo</i>	11.24(4.36)	17.19(4.22)	62.15***
<i>FQu</i>	5.05(3.73)	2.94(2.12)	53.64***
<i>FQ-</i>	2.47(2.59)	1.30(1.10)	75.38***
<i>M</i>	3.42(2.73)	4.19(2.04)	28.12***
<i>M^a</i>	2.10(2.08)	2.82(1.60)	43.86***
<i>M^p</i>	1.33(1.46)	1.35(.99)	2.83**
<i>M-</i>	.26(.61)	.09(.45)	126.09***
<i>FM</i>	4.14(2.84)	3.51(1.51)	29.12***
<i>m</i>	1.74(1.70)	1.25(1.06)	55.34***
<i>a</i> (Active)	6.01(4.00)	6.25(2.30)	5.25***
<i>p</i> (Passive)	3.29(2.53)	2.70(1.69)	28.18***
<i>FC</i>	1.02(1.25)	3.87(2.06)	159.44***
<i>CF</i>	1.65(1.48)	2.07(1.21)	47.11***
<i>C+Cn</i>	.08(.32)	.12(.43)	47.85***
<i>Wgt Sum C</i>	2.28(1.79)	4.23(1.82)	113.01***
<i>FC'+C'F+C'</i>	.87(1.29)	1.31(1.28)	50.77***
<i>FT+TF+T</i>	.67(1.06)	1.16(.80)	117.40***
<i>FV+VF+V</i>	.72(.97)	.48(.93)	51.29***
<i>FY+YF+Y</i>	1.23(1.40)	.98(1.60)	20.04***
Sum Shad'g	3.49(3.20)	3.81(3.36)	5.55***
<i>Fr+rF</i>	.20(.58)	.12(.46)	60.54***
(2)	4.70(3.30)	8.44(2.65)	86.17***
<i>FD</i>	.23(.52)	1.15(1.09)	194.65***

	한국성인(SD)	미국성인(SD)	t값
<i>F</i>	7.49(5.10)	8.17(3.27)	8.32***
<i>Zf</i>	11.06(4.96)	11.22(2.96)	2.21*
<i>Zd</i>	-.17(4.47)	.84(3.11)	14.84***
<i>EA</i>	6.17(4.11)	8.28(2.56)	40.81***
<i>es</i>	9.36(5.94)	8.71(4.68)	4.73***
D 점수	-1.10(1.55)	.02(1.83)	69.77***
Adj D	-.59(1.21)	.31(1.37)	97.91***
<i>Afr</i>	.49(.17)	.66(.19)	954.85***
<i>3r+(2)/R</i>	.27(.16)	.39(.11)	1392.72***
<i>Lambda</i>	.87(.88)	.59(.28)	178.21***
<i>Blends</i>	3.50(3.13)	5.02(2.21)	44.86***
<i>Col-Shd Bl</i>	.39(.71)	.51(.69)	47.01***
<i>X+%</i>	63%(15)	80%(9)	2552.36***
<i>F+%</i>	57%(24)	76%(17)	950.51***
<i>X-%</i>	12%(11)	6%(5)	2059.14***
<i>A%</i>	49%(16)	45%(10)	508.88***
<i>Prim Cont</i>	6.44(3.03)	7.13(1.75)	26.23***
<i>Pure H</i>	2.24(1.81)	3.07(2.00)	41.81***
<i>All H Cont</i>	4.26(3.24)	5.12(1.86)	28.74***
<i>S-Constell</i>	4.60(1.54)	2.07(2.11)	126.68***
<i>SCZI</i>	1.29(1.12)	.40(.78)	208.05***
<i>DEPI</i>	1.45(1.08)	.95(1.08)	81.44***
<i>DV</i>	.09(.33)	.36(1.20)	50.33***
<i>DR</i>	.13(.44)	.51(1.31)	58.47***
<i>INCOM</i>	.31(.65)	.54(.79)	77.98***
<i>FABCOM</i>	.25(.61)	.18(.56)	40.04***
<i>ALOG</i>	.05(.23)	.09(.35)	75.62***
<i>CONTAM</i>	.01(.13)	.01(.07)	.00
<i>SUM6 SP SC</i>	.82(1.27)	1.64(2.09)	44.55***
<i>WSUM6 SP SC</i>	2.32(3.88)	3.96(1.76)	45.30***
<i>AGG</i>	.61(.99)	.72(.84)	26.37***
<i>CONFAB</i>	.06(.23)	.00(.00)	681.43***
<i>CP</i>	.02(.15)	.01(.11)	123.45***
<i>MOR</i>	.95(1.38)	.70(.94)	39.37***
<i>PER</i>	.22(.59)	1.06(1.01)	197.60***
<i>PSV</i>	.47(.80)	.05(.22)	338.86***

* $p < .05$ ** $p < .01$ *** $p < .001$

표3. 70개 로사변인에 대한 남(N=132) 여(N=146)의 집단간 차이

	남자평균(SD)	여자평균(SD)	t값
<i>R</i>	19.85(9.61)	19.06(7.64)	.75
<i>P</i>	4.87(1.72)	4.99(1.85)	.54
<i>W</i>	8.23(3.50)	8.52(4.70)	.59
<i>D</i>	9.29(7.17)	8.53(4.99)	1.02
<i>Dd</i>	2.33(3.23)	1.88(2.61)	1.27
<i>S</i>	2.48(2.21)	2.05(1.98)	1.73*
<i>DQ+</i>	4.30(2.94)	4.57(3.09)	.73
<i>DQv/+</i>	1.22(1.39)	1.53(1.83)	1.58
<i>DQo</i>	14.06(8.81)	12.71(6.47)	1.44
<i>DQv</i>	.22(.58)	.32(.66)	1.37
<i>FQ+</i>	.54(1.04)	.53(.93)	.09
<i>FQo</i>	11.32(4.84)	11.16(3.88)	.29
<i>FQu</i>	5.30(4.17)	4.84(3.27)	1.02
<i>FQ-</i>	2.55(2.57)	2.39(2.62)	.52
<i>M</i>	3.65(3.04)	3.22(2.42)	1.30
<i>M^a</i>	2.33(2.33)	1.90(1.81)	1.73*
<i>M^p</i>	1.32(1.53)	1.34(1.40)	.10
<i>M₋</i>	.30(.67)	.22(.54)	1.03
<i>FM</i>	4.08(3.09)	4.18(2.60)	.30
<i>m</i>	1.65(1.46)	1.82(1.90)	.84
<i>a</i> (Active)	6.24(4.05)	5.80(3.96)	.92
<i>p</i> (Passive)	3.14(2.81)	3.42(2.25)	.91
<i>FC</i>	1.06(1.26)	.98(1.25)	.54
<i>CF</i>	1.45(1.42)	1.83(1.52)	2.12**
<i>C+Cn</i>	.08(.34)	.08(.30)	.17
<i>Wgt Sum C</i>	2.10(1.75)	2.44(1.82)	1.60
<i>FC'+C'F+C'</i>	.70(1.25)	1.02(1.30)	2.11**
<i>FT+TF+T</i>	.68(1.13)	.66(.99)	.14
<i>FV+VF+V</i>	.79(1.03)	.66(.91)	1.11
<i>FY+YF+Y</i>	1.13(1.31)	1.32(1.47)	1.21
<i>Sum Shad'g</i>	3.30(3.27)	3.66(3.15)	.94
<i>Fr+rF</i>	.19(.50)	.21(.65)	.33
(2)	4.76(3.40)	4.65(3.22)	.27
<i>FD</i>	.29(.61)	.18(.42)	1.61
<i>F</i>	7.86(5.70)	7.16(4.48)	1.12

	남자평균(SD)	여자평균(SD)	t값
<i>Zf</i>	11.05(4.30)	11.08(5.51)	.06
<i>Zd</i>	-.34(4.66)	-.02(4.29)	.59
<i>EA</i>	6.24(4.22)	6.11(4.02)	.27
<i>es</i>	9.03(5.89)	9.66(5.99)	.89
D 점수	-.98(1.66)	-1.20(1.45)	1.14
Adj D	-.52(1.28)	-.66(1.13)	1.02
<i>Afr</i>	.47(.16)	.50(.18)	1.58
<i>3r+(2)/R</i>	.27(.15)	.28(.16)	.25
<i>Lambda</i>	.88(.92)	.85(.85)	.23
<i>Blends</i>	3.27(2.91)	3.70(3.31)	1.14
<i>Col-Shd Bl</i>	.36(.68)	.41(.74)	.56
<i>X+%</i>	62%(15)	64%(14)	.83
<i>F+%</i>	55%(24)	58%(25)	1.14
<i>X-%</i>	12%(10)	11%(12)	.41
<i>A%</i>	49%(15)	49%(17)	.23
<i>Prim Cont</i>	6.53(3.14)	6.35(2.93)	.49
<i>Pure H</i>	2.50(2.06)	2.01(1.53)	2.22**
<i>All H Cont</i>	4.59(3.72)	3.96(2.71)	1.60
<i>S-Constell</i>	4.57(1.49)	4.63(1.58)	.34
<i>SCZI</i>	1.30(1.08)	1.29(1.16)	.11
<i>DEPI</i>	1.45(1.02)	1.45(1.13)	.07
<i>DV</i>	.08(.29)	.11(.35)	.87
<i>DR</i>	.09(.36)	.16(.50)	1.42
<i>INCOM</i>	.41(.77)	.23(.50)	2.33**
<i>FABCOM</i>	.25(.65)	.25(.58)	.05
<i>ALOG</i>	.02(.12)	.08(.29)	2.29**
<i>CONTAM</i>	.02(.17)	.01(.08)	.50
<i>SUM6 SP SC</i>	.85(1.29)	.79(1.25)	.35
<i>WSUM6 SP SC</i>	2.35(3.84)	2.30(3.93)	.10
<i>AGG</i>	.67(1.12)	.55(.85)	1.05
<i>CONFAB</i>	.05(.21)	.07(.25)	.83
<i>CP</i>	.02(.12)	.03(.16)	.71
<i>MOR</i>	.94(1.26)	.96(1.48)	.12
<i>PER</i>	.17(.47)	.25(.68)	1.13
<i>PSV</i>	.56(.92)	.39(.67)	1.75*

* $p < .1$ (경향성) ** $p < .05$

($p < .05$). 그러나 한국성인의 총반응이 적은 점을 고려할 때 임상적으로도 유의미할지는 의문시된다. 조직의 정도(Zd)도 미국성인에 비해 한국성인이 더 낮았다.

$EA(M+WSUMC)$ 는 한국성인이 더 낮은 반면, $es(FM+m+Sum\ Shad'g)$ 은 한국성인이 더 높았다. 이는 한국성인이 M 과 $WSUMC$ 가 적었고 FM 과 m 이 더 많았다는 점과 일관되는 결과다.

혼합반응(Blends)과 색채-음영 혼합반응(Col-Shd Bl)도 한국성인에서 더 적었다.

내용(content)면을 보면, 한국성인의 내용범주($Prim\ Cont$)가 더 적었다. 총반응에 대한 동물내용의 비율($A\%$)은 한국성인이 더 높았으나 순수인간반응($pure\ H$)은 한국성인이 더 적었고, 총인간반응($All\ H\ Cont$)도 한국성인이 더 적었다.

자살지표($S-Constell$)와 정신분열증지표($SCZI$) 및 우울증 지표($DEPI$)는 모두 한국성인이 미국성인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사고장애를 반영하는 특별점수(Special Score)를 살펴보면, 특별점수의 합계($SUM6\ SP\ SC, WSUM6\ SP\ SC$)가 미국성인에 비해 한국성인에서 더 적었다.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특별점수는 $Personalized\ Answer(PEP)$ 와 $Perseveration(PSV)$ 이었다. PER 은 미국성인에 비해 한국성인에서 더 적었으나 PSV 는 한국성인에서 더 많았다. 모든 특별점수의 빈도가 1개 이하이므로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임상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70개 Rorschach 변인에 대해 남녀 집단간 차이를 t 검증을 한 결과가 표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따르면, 한국 정상성인집단에서 남녀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CF, FC'+C'F+C', Pure\ H, INCOM, ALOG$ 이었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CF, FC'+C'F+C'$ 가 더 많았고, 순수인간반응($pure\ H$)은 남자가 더 많았다. 특별점수 중 $INCOM$ 은 남자가 더 많았고 $ALOG$

은 여자가 더 많이 하였다.

S, M^a, PSV 에서는 경향성($p < .081-.085$)이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공간반응(S)과 능동적 인간운동 반응(M^a) 및 특별점수 중 보속반응(PSV)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

17개의 구조적 변인의 방향성에 대해 그 빈도를 한국성인과 미국성인(Exner, 1986, p. 259)을 대비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따르면, EB 양식 중에서 내향성인 사람(Introversive)은 한국성인과 미국성인이 약 40%로 비슷하였으나 양향성인 사람(Ambitient)은 미국성인 23.5%에 비해 한국성인은 46.8%로 23%나 더 많았고 외확성인 사람(Extratsensive)은 미국성인 36%에 비해 한국성인은 12.6%로 13.4%나 더 적었다. 달리 말하면, 한국인은 양향성인 사람이 제일 많은 48.6%였고 내향성인 사람은 40.6%로 두번째였으며 외확적인 사람은 12.6%에 불과하였다. 반면 미국인은 내향적인 사람이 40.1%로 가장 많았고 외확적인 사람이 36.0%로 두번째였으며 양향적인 사람이 23.8%로 가장 적었다.

과부화된 사람의 비율을 보면, D 점수 상으로는 한국성인이 55.0%로 미국성인 21.0%에 비해 34%나 많았다. 상황적 스트레스에 기인한 과부화를 제거한 점수인 $Adj\ D$ 상으로는 한국성인이 42.4%로 미국성인의 16.2%에 비해 26.2% 더 많았다. 즉, 한국성인이 미국성인에 비해 과부화된 사람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좋은 형태질($X+\%, F+\%$)의 비율이 70% 이하인 사람은 한국성인의 경우 65.8%와 71.6%로 미국성인의 10.0% 및 26.1%와 비교하면 한국성인에서 약 45-55% 이상 많았다. 나쁜 형태질($X-\%$)의 비율이 15%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한국성인의 경우 32.0%로 미국성인 3.3%에 비해 28% 이상 많았다. 즉, 미국성인에 비해 한국성인에서 좋은 형태질이 70%이하인 사람과 나쁜 형태질이 15%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4. 17개의 구조적 변인의 방향성에 대한 한국성인과 미국성인의 빈도 비교

	한국 (N=278)	미국 (N=600)
	빈도 (%)	빈도 (%)
<i>EB</i> 양식		
$M - WSUMC \geq 2$ (내향성)	113 (40.6)	241 (40.1)
$1.5 > M - WSUMC \geq -1.5$ (양향성)	130 (46.8)	143 (23.8)
$WSUMC - M \geq 2$ (외향성)	35 (12.6)	216 (36.0)
<i>EA-es</i> : 과부화		
D 점수 < 0	153 (55.0)	126 (21.0)
Adj D < 0	118 (42.4)	97 (16.2)
<i>Zd Score</i> > +3.0 (과잉조직)	55 (19.8)	107 (17.8)
<i>Zd Score</i> < -3.0 (조직미흡)	208 (74.8)	42 (7.0)
$X - \% < 70\%$	183 (65.8)	60 (10.0)
$F + \% < 70\%$	199 (71.6)	157 (26.1)
$X - \% > 15\%$	89 (32.0)	20 (3.3)
자살지표 ≥ 8	6 (2.2)	11 (1.8)
정신분열증 지표		
$SCZI = 5$	1 (0.4)	0 (-)
$SCZI = 4$	14 (5.0)	6 (1.0)
우울증 지표		
$DEPI = 5$	1 (0.4)	0 (-)
$DEPI = 4$	10 (3.6)	14 (2.3)
기타변인들		
$FM + m < \text{Sum Shading}$	49 (17.6)	117 (19.5)
$a < p$	59 (21.2)	17 (2.8)
$M^a < M^p$	71 (25.5)	71 (11.8)
$3r + (2)/R < .30$	155 (55.8)	56 (9.3)
$Afr < .55$	195 (70.1)	157 (26.1)
$\text{Lambda} \geq 1.5$	47 (16.9)	8 (1.3)
$\text{Pure } H < 2$	118 (42.4)	118 (19.7)

조직의 정도 (*Zd*)는 한국성인의 경우 미국성인에 비해 과잉조직자(overincorporator)와 조직미흡자(underincorporator)가 모두 많았다. 특히 조직 미흡자의 경우 미국성인은 7%에 불과한데 반해 한국성인은 74.8%로 대다수의 한국성인이 조직미흡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분열증지표(*SCZI*)가 4개 이상인 사람의 비

율은 한국성인이 5.4%로 미국성인 1.0%보다 4.4% 더 많았다. 우울증지표(*DEPI*)가 4개 이상인 사람의 비율도 한국성인이 4%로 미국성인의 2.3%에 비해 1.7% 더 많았다.

$a < p$ 인 사람의 비율은 한국성인에서 21.2%로 미국성인의 2.8%에 비해 무려 18.4%나 많았다. 자기중심성지표($3r + (2)/R$)가 0.3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은 한국성인이 55.8%로 미국성인 9.3%에 비해 46.5%나 더 많았다. $Af < .55$ 인 사람은 한국성인의 경우 과반수 이상인 70.1%인데 반해 미국성인에서는 26.1%로 한국성인에서 44%나 더 많았다. $\Lambda \geq 1.5$ 도 한국성인은 16.9%가 이에 속하는데 반해 미국성인은 1.3%에 불과하였다.

17개의 구조적 변인의 방향성의 빈도를 남녀별로도 비교하였다. 그 결과, EB양식은 성인 남자에서는 내향성인 사람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양향성 외향성의 순이었다. 반면, 여자는 양향성인 사람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내향성 외향성 순이었다. 과부화된 사람의 비율은 D 점수 상으로는 여자가 57.9%로 남자 50.4%에 비해 7.5% 더 많았고, Adj D상으로는 여자가 46.1%로 남자 36.0%에 비해 10.1% 더 많았다. 과잉조직자와 조직미흡자의 비율은 남녀가 모두 비슷하였다. 좋은 형태질이 70%이하인 사람의 비율도 남녀가 비슷하였으나 나쁜 형태질의 비율이 15%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남자가 36.7%로 28.9%인 여자에 비해 8.2% 더 많았다. 자살지표가 8이상, 정신분열증지표 4이상, 우울증지표 4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남녀가 비슷하였다. 수동운동반응이 능동운동반응보다 많은 사람($\alpha < p$)과 수동인간운동반응이 능동인간운동반응보다 많은 사람($M^a < M^p$)의 비율은 여자가 다소 많았다. 순수인간반응이 2개 이하($Pure H < 2$)인 사람의 비율도 남자보다 여자가 다소 많았다.

논 의

본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대다수의 Rorschach 변인에서 한국정상성인의 결과가 미국의 기준과 비교할 때 대단히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Rorschach검사에 대한 반응에는 성격특성과 언어 및 문화에 따른 경험의 차이가 지각체계 및 지각과정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문화와 성격

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상호 영향을 주므로 Rorschach 변인중 어느 변인이 성격측면을 반영하며 또 어느 변인이 문화적 측면을 반영하는지를 엄밀하게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자극의 속성이나 반응의 특성과 변인의 채점 기준을 고려해보면 Rorschach 검사의 반응 중에는 Rorschach 자극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문화권 사이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반응과 특정 문화권내에서 발생하는 빈도에 따른 기준에 의해 채점되거나 언어적 습관이 보다 많이 반영되는 반응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문화적인 요소 중 오랜 역사 속에서 누적되고 내면화되어 한국인의 성격적인 특성으로 깊게 내재화 되어 있는 요소들과 관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보다 크며, 후자는 직접적으로 체험되는 보다 최근의 언어문화적인 경험들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영역반응, 총반응수, 인간운동반응, 동물운동반응, 색채반응, 음영반응, 형태반응, 인간반응, 동물반응, 특별점수 등은 직접 비교가능한 것으로 보다 성격특성을 반영하는 면이 크며, 형태질, 자기중심성지표 및 각종 정신병리지표등은 언어문화적인 차이의 영향을 보다 적절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Rorschach 검사 자극의 속성이나 반응의 특성을 고려해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성인이 미국성인에 비해 총반응수, 인간운동반응, 동물운동반응, 내용범주, 총인간반응, 특별점수 등이 적었는데, 이런 차이는 한국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국인은 미국인에 비해 보다 소극적으로 혹은 절제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한국성인은 W반응이 상대적으로 많고 D반응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들의 비율이 $W : D = 1 : 1$ 이었다. 이 결과는 한국인이 자극에 접근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片口(1959)의 연구에서도 미국인에 비해 W반응의 비율이 많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에 대해 그는 일본인이 미국인에 비해 분석적

이고 합리적으로 자극에 접근하기 보다는 총체적이고 인상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이런 반응 경향은 일본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동양권의 어떤 특성과 연관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실험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야 할 것이지만, 어떤 한 개인이 W 반응을 많이 한 것에 대해 Exner 방식과 미국성인의 규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포부수준이나 성취욕구가 높다고 해석하는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성인은 색채반응이 적었고, Afr 가 낮았으며, FC 와 $CF+C$ 의 방향은 $FC < CF+C$ 였다. 또한 음영반응 중 $FC'+CF+C'$ 와 $FT+TF+T$ 는 적었고, $FV+VF+V$ 와 $FY+YF+Y$ 는 많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한국사람이 정서를 체험하는 양상이나 정서경험에 접근하고 이를 조직하는 방식이 미국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넷째, 한국성인은 인간운동반응과 순수 인간반응 및 총 인간반응이 적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情的인 사회로 인간관계의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이에 예민하지 않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상과 같이 한국인의 Rorschach 반응 특성으로 한국인의 성격특성에 대한 시사점들을 논의하였지만, 앞으로 각 변인에 대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져야 더욱 정확한 Rorschach 점사의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인과 미국인간 직접적인 언어문화적 차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Exner의 형태질표에 따라 채점을 한 결과, 한국성인은 좋은 형태질의 비율이 낮았고 나쁜 형태질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한국사람은 평범반응이 적었다. T-I. Moon과 B.P. Cundick (1983)도 한국어와 미국어의 2개국어를 구사하는 한국인과 미국인을 비교하여 한국인의 형태질이 미국인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평범반응의 갯수도 적은 결과를 얻었다.

데, 이들은 이에 대해 한국인이 미국인에 비해 지각적으로 미분화되어 있으며 규범적이지 못하다고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추론에는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Exner (1974, 1986)는 좋은 형태와 나쁜 형태 등의 형태질 수준을 형태의 정확도 보다는 빈도에 의해 결정했으며, 평범반응(P)도 표집에 포함된 사례의 1/3이상에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규정하였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Exner는 1974년에 포함시켰던 평범반응 13개중 1986년에는 조사된 반응의 빈도에 따라 4개(I. 사람, III. 나비, IV. 동물가족, IX. 사람 혹은 루즈벨트 얼굴)를 제외시켰다. 이는 미국내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 한국성인은 자기중심성 지표($3r+(2)/R$)가 낮았고, 자기중심성지표가 .3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이 결과 역시 액면대로 해석하여 한국인이 미국사람보다 자기에 대한 관심이나 자존심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한국인은 복수에 단수인칭을 사용하는 언어습관이 있으며, 이런 성향이 자기 중심성 지표를 낮추게 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만 하다. 또한 한국성인의 자살지표, 정신분열증 지표, 우울증 지표가 미국성인에 비해 높았다. 이들 세 가지 지표에는 형태질, 인간반응, 자기중심성지표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국인의 경우 이들 세 가지 지표가 체계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형태질과 평범반응 및 자기중심성 지표에 있어서 두 집단의 차이는 성격적인 차이라고 하기 보다는 문화적 언어적 환경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형태질 수준표와 평범반응 및 영역 구분(location area)이 조사되어야 할 것이며, 그 기준표를 토대로 하여 자기중심성 지표를 비롯한 여러 정신병리 지표의 기준이 재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피검자가 고학력과 젊은 층에 다소 편중되게 표집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인구분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Exner

(1986)가 규준연구에서 고려했던 지역이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충화표집을 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Exner의 종합체계에 의한 규준이 없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잠정적으로 규준을 제시해주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보다 전집을 대표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중술, 엄무광(1967). 한국정상인의 Rorschach 반응. *임상심리학보*, 1, 26-29.
박조열(1961). 한국정상인의 Rorschach반응. *최신의학*, 4, 653-665.

片口 安史(1956). *心理診断法-ロ-ルシャツハテスト* 牧書店.

Exner, J. E. (1974). *The Rorschach: A comprehensive system. Vol. I.* New York: John Wiley & Sons.

Exner, J. E. (1986). *The Rorschach: A comprehensive system (2nd Ed.) Vol I.* New York: John Wiley & Sons.

Moon, Tea-Im, & Cundick, B. P. (1983). Shift and constancies in Rorschach responses as a function of culture and languag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 345-349.

Rorschach Responses in Korean Normal Adults

Kyung-Jin Shin • Ho-Teak Won

Student Guidance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to provide tentative Korean adult norms of Rorschach responses based on Exner's Comprehensive System. The means and SDs of 70 variables, and the frequencies and percentages concerning directionality for 17 structural variables provided by Exner were calculated from 278 cases of over-18 years old normal adults, and compared with Exner's American adult norms. The results indicated as follows: First, Korean showed smaller number of *R*, *P*, Content Category, *pure H*, all *H*, *Zf*, and greater *A* than did American adults. Second, Korean showed relatively greater *W*, and $W:D=1:1$. Third, in Form Quality, which was scored according to Exner's Form Quality Tables, the percentage of good Form Quality was very low and those of poor Form Quality was very high. Fourth, Korean showed less *M* and greater *FM*, and the directionality of *M* and *FM* was $M < FM$. Fifth, Korean showed less *FC*, $CF+C$, and Wgt Sum *C*, and the directionality of *FC* and $CF+C$ was $FC < CF+C$. In Shading responses, Korean showed less Sum *C'* and Sum *T*, and greater Sum *V* and Sum *Y*. Sixth, over half of Korean was $Zd < -3.0$. Seventh, Korean showed low *Egocentricity Index* and over half of Korean was under 0.30 in *Egocentricity Index*. Finally,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American were discussed. Form Quality Tables, Popular Responses, and Location area must be investigated based on Korean samples.